






제9차 한국언어문화전공 해외학자 초청 특강




- | |
|---|
| ○ 주최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
| ○ 주관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팀 / 학생회 |
| ○ 일시 : 2025년 5월 22일(목) 17:00-18:30 |
| ○ 참여대상 : 한국언어문화전공 재학생 및 상명대학교 재학생 |
| ○ 장 소 : 송백관 502호(오프라인 참여) |
| ○ 참여방법 : 온라인 줌 화상회의 및
강의실 참석 |
|  한국언어문화전공TV  |
| ○ 줌 접속링크 : https://us06web.zoom.us/j/84314898249?pwd=aFwMRByLtpq2bamsjA3nGtFEBaaTa1.1
회의 ID: 843 1489 8249 / 암호: KR8JDq |
| ○ YouTube 스트리밍 접속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3WLP1wgs6aA99rhdbvXFEQ |



제9차 한국언어문화전공 해외학자 초청 특강 일정 및 순서

- 주최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 주관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팀 / 학생회
 - 일시 : 2025년 5월 22일(목) 17:00-18:30
 - 참여대상 : 한국언어문화전공 재학생 및 상명대학교 재학생
 - 장 소 : 송백관 502호(오프라인 참여)
 - 참여방법 : 온라인 줌 화상회의 및
강의실 참석
- 

한국언어문화전공TV


- 줌 접속링크 : <https://us06web.zoom.us/j/84314898249?pwd=aFwMRByLtpq2bamsjA3nGtFEBaTa1.1>
회의 ID: 843 1489 8249 / 암호: KR8JDq
 - YouTube 스트리밍 접속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3MLP1wgs6aA99hcbvXFEQ>

16:3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줌 화상 회의 점검 및 접속 상태 확인
사회 : 이채령(한국언어문화전공 4학년)	
17:10-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사회 : 이채령(한국언어문화전공 4학년)	
17:10-1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학자 초청 강연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의 성장 가능성” - 피트리 메우티아 교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나시오날 대학교(UNAS대) 한국어학과)
17:50-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응답
18:20-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식 및 사진 촬영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의 성장 가능성”

강연자 : 피트리 메우티아 교수

○ 학력

- ▶ 2009.8. 자카르타 나시오날 대학교 언어와 문학과 인도네시아어 전공 학사
- ▶ 2013.2. 경희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 ▶ 2024.8. 경희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

○ 연구분야:

- ▶ 한국어 교육, 한국어 학습자 습득, 외국어 습득,
- ▶ 한국어학, 언어학, 통번역

○ 주요 경력

- ▶ 2017년 제1회 적도문학상 최우수상 및 아세안 대상 수상
- ▶ 2016년 7월부터 2017년까지 한국정부초청장학생(KGSP) 홍보대사 활동
- ▶ 한국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 장학금 수혜
- ▶ 경희대학교 총장 장학금 수혜



※ 소속 :

자카르타 나시오날 대학교
(UNAS대) 한국어학과

강연 개요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한류의 영향력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도전 과제를 소개하고, 한국학이 학문적 영역으로 어떻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또한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어떤 교수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 교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실제적인 경험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한국학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합니다.
- 이 강의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어교육의 세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도네시아라는 중요한 교육 현장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연 일정 및 주최

- 주최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팀, 학생회
- 일시 : 2025.05.22.(목) 17:00-18:30
- 장소 : 송백관 502호
- 참여 방법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여, 특강은 온라인으로 진행
- 참여 링크 : <https://us06web.zoom.us/j/84314898249?pwd=FwMRBlUtp2bmsjA3tGFEBaaTl.1>
회의 ID 843 1489 8249 / 암호 KR8JdQ
- 사전 질문 조사(URL) : 추후통보

■ 해외학자 초청 강연(2020년~)

날짜	강연자	소 속	특강 주제
2020.12.08.	안드리 리쾨코프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언어통번역학대학	멕시코에서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몇 가지 조언
2021.11.26.	임유의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대만 한국어언어문화교육의 현황 및 전망
2022.05.30.	아티프 파라즈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 및 문화학과	파키스탄에서 한국어교육의 현황
2022.11.17.	김혜정	스페인 국립살라망카대학교 현대어학과/한국어문학	한국학 교육 현황과 교원 임용 절차
2023.05.26.	정은경	튀르키예 국립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튀르키예 지역 한국학 현황과 비전
2023.11.15.	이해성	폴란드국립브로츠와프대학교 한국학과	폴란드의 한국학 현황 및 비전
2024.05.01.	알리에바 바하르	아제르바이잔 국립언어대학교 아제르바이잔어 통번역 전공	인공지능 시대에 언어교육과 통번역 교육
2024.05.28.	노요한	미국 MIT대학교 문학부 연구원	MIT에서 만나는 한국의 문화와 문학
2025.05.22.	피트리 메우티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나시오날대학교 한국어학과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의 성장 가능성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의 성장 가능성

Fitri Meutia, Ph.D.



발표자 소개 및 발표 주제 선정의 배경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의 성장 가능성

Fitri Meutia, Ph.D.



1. 서론

2. 논의

2.1. 인도네시아 개요

2.2. 한류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학습 동기 향상에 미친 영향

2.3.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

2.4. 한국어, 한국학 교수 및 학습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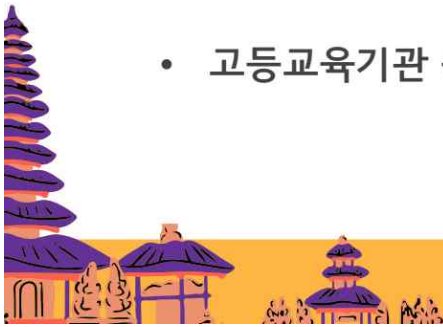
2.5. 성장 가능성과 향후 비전

3. 결론



1. 서론

- 한류 확산 → 한국어 교육 기회 증가
- 인도네시아 → 한국어 학습자 세계 6위
-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시작



1. 서론

- 한국어 → 학문적 연구 분야로 발전
- 교원·교재·교육과정 등 현장 과제 존재
- 인도네시아 → 전략적 파트너 가능성
- 본 발표 → 교육 현황·과제·미래 비전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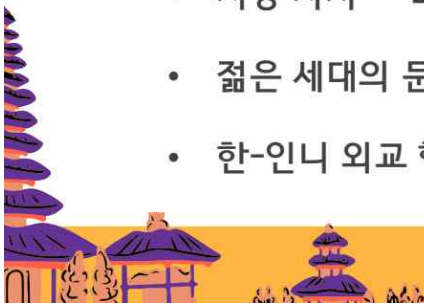


2. 논의

2.1. 인도네시아 개요



- 세계 4위 인구 대국, 17,000개 섬 보유
- 1,300개 민족, 700개 언어 → 다문화 사회
- 지방 자치 →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 젊은 세대의 문화 개방성 → 한국어 인기
- 한-인니 외교 협력 강화 → 한국어 수요 증가



2. 논의

2.2. 한류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학습 동기 향상에 미치는 영향

- 한류 = 소프트 파워 → 한국어 관심 증가
- 긍정적 인식 확대: 매우 긍정 42.8%, 긍정 40.8%
- 학습 시작 계기: 85% K-팝·드라마로 시작
- 동기 유형:
 - 통합적: 문화 일원 되기
 - 도구적: 유학(50.2%), 번역(45.3%), 취업(39.1%)
- 추가 동기: 외국어 흥미, 패션 관심, 가족 권유 등
- 한류의 기능: 오락 → 교육·문화 교류·진로 탐색
- 소론 : 한국어는 문화적 자기계발 매개체, 한류는 전략적 자원



2. 논의

2.3.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 설문 대상: **400명 (AJARI &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 수업 언어: 혼용 **64.3%**, 인니어 **51%**, 한국어 **33.5%**, 영어 **30.3%**
- 이해도: **50% 이해 42.8%**, **75% 이해 34.3%**, 완전 이해 **2.3%**
- 교수 방법: 강의식 선호, '한국문화' **37%**
- 토론 중심: '한국언어학' **29%**, '한국어교육' **22%**
- 교수 언어 선호: 한국어+인니어 혼용 (**44%**, **43%**)
- 시사점: 유연한 교수법과 언어 선택이 효과적



2. 논의

2.3.1.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전공 프로그램 수

- 신설 필요 응답: **90.8% (363명)**
- 배경: 한국학 수요 ↑ (**78%**), 전공 수 적음 (**48.2%**)
- 한-인니 협력 중요 (**42.1%**)



2. 논의

2.3.2. 한국어 학습의 시작 장소

- 79.3%의 학생이 독학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
- 9%만이 공식 기관(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 통해 시작
- 그 외 다양한 경로:
 - 온라인 강의
 - 민간 어학원 (예: 국제어학원)
 - 중등학교 교육
 -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2. 논의

2.3.3. 한국어 학습의 난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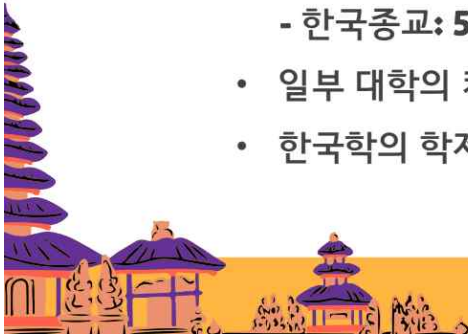
- 미시적 요소의 어려움
 - 어휘 습득: 48%
 - 문법 이해: 45%
 - 발음: 37%
 - 거시적 언어 능력
 - 읽기 > 듣기: 수용적 능력 중 상대적으로 쉬움
 - 말하기(65%) > 쓰기(37%): 생산적 능력 중 말하기가 더 어려움
- ↳ 교수 전략에서 수용 능력 vs 생산 능력의 균형 필요



2. 논의

2.3.4. 한국학 교과목의 개설 현황

- 주요 과목 수강 경험 부족:
 - 한국철학: **86%** 수강 경험 없음
 - 한국정치: **70.3%** 수강 경험 없음
 - 한국종교: **52.8%** 수강 경험 없음
- 일부 대학의 커리큘럼이 언어 중심에 편중
- 한국학의 학제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2. 논의

2.3.5. 한국어 및 한국학 교재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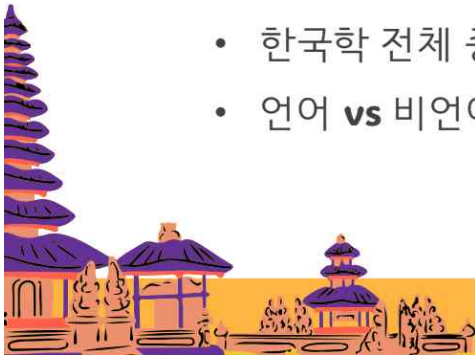
- 주로 사용하는 교재 :
 - 한국 대학 제작 교재: **57.3%**
 - 『Korean for Indonesians』 (Korea Foundation): **54%**
 - 교수 자체 제작 자료: **35.8%**
- 무료 자료(PDF, 복사본 등)에 대한 선호도 높음
- ‘한국어 교육’, ‘번역’ 과목에서는 인도네시아어 교재 부족
→ 교수자들이 직접 교재 구성해야 하는 경우 많음



2. 논의

2.3.6. 한국어 학습 기간

- 전체 응답자의 **86.3%** → 수업 외 학습 시간 주당 최대 **5시간**
- **57.5%** → 주당 **1~5시간** 동안 한국어 학습에 집중
- 한국학 전체 중 한국어에 더 많은 시간 투자
- 언어 **vs** 비언어 영역 간 학습 비중 불균형 시사



2. 논의

2.3.7. 교수 방법 (수업 언어 및 교수 방식)

- **64.3%** : 한국어 + 인도네시아어 혼합 사용
→ 이중언어 접근이 일반화됨
- **51%** : 인도네시아어만 사용
- **33.5%** : 한국어만 사용
- 다양한 언어 수준에 맞춘 다언어적 수업 조정
- 교수 방식에 대한 요구:
 - 강의 중심 + 참여형 수업의 균형
 - 토론 · 발표 등 상호작용 강조



2. 논의

2.3.8.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의 시급성

- 한국학 = 학제 간(**interdisciplinary**) 학문
 - 언어, 문화, 정치, 경제, 종교, 국제관계 포함
- 대학별 관점:
 - **UI**: 경제·정치 분야 간 융합 연구 강조
 - **UGM**: 한-인도네시아 비교연구의 필요성 제기
 - **UPI**: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문화적 상호이해 중요
 - **UNAS**: 한국의 강점 → 인도네시아 상황 맞춤 적용 필요

2. 논의

2.3.9. 한국학 자료의 접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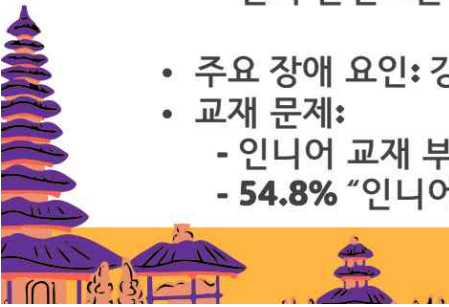
- 주요 경로: **Google Scholar, KCI, RISS, DBpia**
- 문제점: 인니어 자료 부족, 한국어 자료 접근 어려움
- 제안: 현지 맞춤형 자료 개발 및 협력 강화

2. 논의

2.4. 한국어, 한국학 교수 및 학습의 과제

2.4.1. 한국학 관련 과목 학습에서의 난이도 인식

- 어려운 과목:
 - 한국 정치 **83%**, 경제 **79%**, 철학 **79%**, 언어학 **74%**, 역사 **55%**
- 쉬운/중간 난이도 과목:
 - 한국 사회 **28%**만 어렵다 응답
 - 문화 콘텐츠는 **45%**가 '쉽다' 평가
- 주요 장애 요인: 강의 내용(**39%**) > 언어(**10%**) > 교재 언어(**16%**)
- 교재 문제:
 - 인니어 교재 부족
 - **54.8%** “인니어 교재 매우 필요”



2. 논의

2.4.2. 한국학 전공에서의 한국학 교육의 도전 과제

도전 ①:

- 비언어 과목 흥미 ↓
- 학생들 대부분 실용적 한국어에 더 관심

도전 ②:

- 교수 인력 부족
- **UGM**: 원어민 교원 1명 / **UNAS**: 전공자 교수 부족

해결 제안 :

- 교원 확충 + 교수 전문성 강화
- 프로젝트형 수업, 협동 학습 등 도입 필요



2. 논의

2.4.3.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 ☛ 핵심 장애 요인
 - 교수 인력 부족 (양적·질적)
 - 교육과정 불균형 (언어 교육 중심)
 - 정부 규제 및 대학 간 협력 부족
- ☛ 사례
 - **UNAS**: 전공 교수 적음 + 비전공자 많음
 - **UI, UGM**: 박사 필수 조건 → 유연성 ↓
 - 외교 등 전문 진출 사례는 극히 드물



2. 논의

2.5. 성장 가능성과 향후 비전

2.5.1. 한국학 전공 내 한국학 교과목 확대의 시급성

- ☛ 교과목 다양화 필요성
 - 현재 교과목 수 부족
 - 학제 간 특성 반영 미흡
- ☛ 대학별 제안 사례
 - **UGM**: 경제, 정치, 문학 등 추가 제안
 - **UPI**: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강화, 통역 훈련
 - **UNAS**: 관광, 사회, 남북관계 등 국제 관계 과목 제안



2. 논의

2.5.2.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확장의 전략과 기대

확장의 필요성

- **UI, UGM, UPI, UNAS** 등 주요 대학: 전공 신설 강조
- 자바섬 외 수마트라, 발리, 술라웨시 등 전략 지역 지정

과제 및 전략

- 원어민 교원 확보 + 현지 교수 역량 강화 병행
- 커리큘럼 다양화와 인적 자원 개발 병행 필요
- 정부-대학-지역사회 협력 필수



2. 논의

2.5.3. 한국학 강화를 위한 다자 협력 체계

협력 주체

- 인도네시아 정부: 장학금·제도 개혁·행정적 지원
- 한국 정부: 원어민 파견·교재·홍보·장학금 제공
- 학계: 커리큘럼 개발·교재 현지화·공동 프로그램
- 제3섹터: 대중 홍보·인턴십 및 취업 기회

기대 효과

-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한국학 생태계
- 한-인니 관계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2. 논의

2.5.4.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의 미래 계획과 기대

미래 계획

- 한국학 전공 확대 (인문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사회 분야로)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커리큘럼 조정
- 한국학 센터 설립 및 연구·출판 강화

기대와 과제

- 직업 다양화(비즈니스·건축·기술 등)
- 중·고등학교 및 직업학교에 한국어 정규 과목 도입
- 공동 프로젝트와 교육 시스템 통합

3. 결론

긍정적 흐름

- 학생 관심 증가
- 전공 개설 대학 확대
- 양국 교육기관 협력 심화

지속가능한 전략 필요

- 커리큘럼 제약, 교수 인력 부족, 자료 접근성 문제
- 교육과정 통합, 교수 역량 강화, 진로 연계 방안 모색

협력과 전망

- 정부-교육기관-민간 협력 필수
- 한국학의 학문적·외교적 매개체로서의 성장 가능성



-프리마까지-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의 성장 가능성

Fitri Meutia, Ph.D.

I. 서론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은 글로벌 이미지에 있어 큰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한류(韓流)의 확산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 현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의 발전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 성장의 잠재력을 열어주었다. 드라마, 음악, 영화, 음식 등 문화 콘텐츠의 수출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높이는 등 교육 분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이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문화적 다양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2023년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어 학습자 수에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글로벌 교육 분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음을 반영한다. Nye(2004)가 강조한 바와 같이, 소프트 파워란 강제력이 아닌 문화, 가치, 외교 정책 등의 매력을 통해 타국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류는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어학원이나 중등교육기관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에서 시작되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986년 한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가 선택 과목으로 처음 개설되었으며, 그로부터 1년 후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립대학교(Universitas Nasional)는 한국학연구소(Korean Studies Center)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의 설립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제도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데 있어 본보기가 되었다. 한국어 교육사에서 이 연구소의 창립은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대학들이 3년제 전문학사 과정과 4년제 학사 과정을 포함한 한국어 전공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교(Universitas Nasional)는 1995년에, 가자마다대학교(Universitas Gadjah Mada)는 2003년과 2007년에, 인도네시아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는 2006년에,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는 2015년에 각각 한국어 관련 학과를 설립하였으며, 국립대학교는 2018년에 다시 한국어 교육 전공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어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공식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Lee와 Kim(2021)의 견해와도 일치하는데, 그들은 “학술 기관의 설립은 한국어가 대중적인 외국어에서 진지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고등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야 한국어 교육은 점차 어학원, 중등학교,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어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인기 있는 외국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흥미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민간 교육기관과 언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Choi(2015)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 현상이 “젊은 인구가 많고 디지털 문화 소비가 활발한 국가들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사회적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인도네시아는 젊은 인구 비율이 높고, K-팝, 한국 드라마,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학습이 단순히 대중문화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초기 단계를 지나, 이제는 학문적 인프라의 일환으로서 통합 및 정착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대중문화의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공동체 형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Byon(2012)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이 대학의 교육과정에 진입하고 학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적 목적을 넘어서 학문적 교류와 문화 외교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여러 도전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 증대가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교육의 확대와 한국학 성장에 있어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량 있는 교원 확보의 한계, 지역적 맥락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의 부족, 그리고 현지 학습자 특성에 부합하는 교재의 부족 등 여러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한국어 교육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본 글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여기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사회문화적 배경, 한류가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수 방법, 그리고 교사 및 교육기관이 직면한 주요 과제 등 여러 중요한 측면**을 다룬다. 더불어, 본 강의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Koreanology)이 본격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조명하며, 향후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해외에서 한국어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한국 대학생들은 **글로벌한 시각을 형성하고, 지역적 역동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포용적이고 적응력 있는 교수 전략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ee와 Kim(2021)이 재차 강조한 바와 같이, 해외 한국어 교육의 성공은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간 소통을 구축하며, 학습자의 요구를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에 크게 달려 있다.

따라서 본 강의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문화 간 이해를 촉진하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라는 사명에 향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진 잠재력을 발굴하고 직면한 과제에 대응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향후 한국어 교육의 세계적 확대와 한국학의 학문적 발전에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논의

2.1. 인도네시아 개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로, 17,000개 이상의 섬과 2억 7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2023)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서, 민족, 언어, 문화 면에서 매우 높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2022)의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는 1,300개 이상의 민족 집단과 약 700여 개의 지역 언어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도네시아를 복합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사회 및 교육 환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로 만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 체제와 대통령 중심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개혁 시대 이후 시행된 지방 자치 제도로 인해 각 주와 시·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외국어 교육, 특히 한국어와 같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이나 지방 정부의 교육 이니셔티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대시켰다.

인도네시아의 교육 체계는 초등 교육(6년), 중등 교육(중학교 3년 및 고등학교/직업학교 3년), 그리고 고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 교육은 전국 각지에 분포된 국공립 및 사립 대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어 능력을 포함한 글로벌 역량의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강한 문화적 매력으로 인해 주목받는 외국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Indrawati(202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젊은 세대는 외래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성향을 보이며, 시각적·디지털 기반의 학습 방식에 익숙하고, 학습 내용이 대중적 트렌드나 개인적 관심사와 연결될 때 높은 학습 동기를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문화를 한국어 학습으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진입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1973년부터 이어져 온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외교 관계는 교육, 문화,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Kim, 2021). 특히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에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관광, 기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리적·인구학적·문화적 측면에서 풍부한 배경을 지닌 인도네시아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발전에 있어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높고, 국제 프로그램에 개방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강한 관심은 이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한국어 교사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며, 향후 맥락에 적합한 효과적인 교수 접근법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2.2. 한류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학습 동기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류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촉매제로 작용해 왔다. 이 문화적 물결은 단순히 음악(K-팝), 드라마(K-드라마), 음식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Nye(2004)는 이와

같은 문화적 영향력을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한 국가가 타국을 강제하지 않고 문화적 가치와 긍정적인 이미지의 매력을 통해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은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그 결과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맥락에서 한류는 청년 세대의 한국학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AJARI(2024)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42.8%가 한국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40.8%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K-팝, 한국 드라마, 리얼리티 쇼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한국을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국가, 그리고 학문적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꾸준히 이미지화해 왔으며, 그 결과 한국학은 단순한 학문 분야를 넘어 생활양식과 미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16%는 한국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2명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강한 노출로 인해 형성된 긍정적 인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함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인식 외에도, 한류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일한 조사(AJARI, 2024)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K-팝, K-드라마, 기타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동기는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에 해당하며, 자신이 선망하는 문화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한편,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응답자의 55%는 한국어가 흥미로운 언어라고 생각하며, 50.2%는 한국에서의 유학을 희망하고, 45.3%는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39.1%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7%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학습 이유로 들었다.

주된 동기 외에도,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추가적인 학습 이유를 제시하였다. 외국어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 강한 호기심, 특히 패션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학문적 진로를 희망하는 동기, 어릴 적부터 한국어를 접해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배경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적지 않은 수의 응답자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 한국어를 학습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AJARI 외, 2024).

Choi(2015)의 연구 역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며, 한류의 강점은 청년 세대와의 감정적·열망적 공명을 형성하는 능력에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의 맥락에서 한류는 단순한 오락 매체를 넘어 교육, 문화 교류, 국제적 진로 탐색의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Lee와 Kim(2021)은 이에 더해, 문화 소비에서 공식적인 학습 공간으로의 전환은 문화 내면화 과정의 깊이를 반영하며, 궁극적으로 상징적 정체성의 형성과 보다 진지한 학문적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한류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과 한국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보다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류는 한국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문화적 경험에 접근하고 자기 계발과 미래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번역적 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향후에는 학제 간 및 문화 간 접근을 통해 그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3.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교수 언어, 교수 방법, 수업 형태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 등 여러 측면에서 점차 역동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자협회(AJARI)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AJARI, Park 외, 2024)**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인도네시아 내 여러 대학의 한국학 전공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응답자 중 257명(64.3%)은 강의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교수 언어가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의 혼용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수업의 대다수가 이중언어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현지 맥락 속에 통합하려는 교육 정책의 방향을 반영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의 한국어 숙련도가 다양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며, 강의 내용의 이해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다.

204명(51%)의 응답자는 강의를 전적으로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여전히 모국어가 학문적 내용 전달의 주요 매체로서 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134명(33.5%)은 한국어만을 사용한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121명(30.3%)은 영어를 교수 언어로 사용하는 강의를 듣고 있다고 답하였다. 영어와 한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강의는 63명(15.8%)에 불과하여, 가장 적게 활용되는 교수 언어 방식으로 나타났다.

AJARI(2024)의 설문조사는 또한 학생들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71명(42.8%)은 강의 내용의 약 50%를 이해한다고 응답하였고, 137명(34.3%)은 약 75%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반면, 전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단 9명(2.3%)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 중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한 시급성과, 학생들의 실제 언어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교수 전략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수 방법에 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강의식 수업 방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한국문화’ 과목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37%). 반면, ‘한국철학’ 과목은 9%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해당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과목이 대학 차원에서 충분히 개설되지 않았거나, 학생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할 수 있다.

‘한국언어학’(29%) 및 ‘한국어교육’(22%)과 같은 과목에서는 토론과 발표를 통한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 학생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와 ‘한국사회’는 강의식과 참여형 수업 방식 간의 균형을 보이는 반면, ‘한국종교’와 ‘한국경제’와 같은 과목은 각각 42%, 50%의 학생이 해당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는 접근성의 한계, 커리큘럼의 제약, 혹은 낮은 관심도 등을 시사할 수 있다.

AJARI(2024)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대다수는 여전히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주요 교수

방법으로 선호하고 있으나, 학생 간 토론의 중요성 또한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방식에 대한 신뢰와 함께, 협력적·상호작용적 학습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철학’과 ‘한국종교’와 같은 추상적이고 개념 중심의 과목에서는 각각 47%, 46%의 학생이 교수자의 설명 중심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경제’, ‘한국문학’, ‘한국사’와 같은 과목에서는 학생의 발표 및 토론이 수업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교수 언어에 대한 선호는 전공 세부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및 ‘한국언어학’ 과목에서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혼용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으며(각각 44%, 43%), 이는 원어 자료의 진정성과 학습자의 이해도를 동시에 고려한 이중언어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철학’(44%) 및 ‘한국종교’(37%)와 같은 개념 중심 과목에서는 인도네시아어의 사용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학생들이 모국어를 통해 심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 익숙함을 나타낸다. ‘한국경제’(35%)와 ‘한국사’(38%)에서도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혼용이 많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복잡한 내용 전달에 있어 보다 친숙한 언어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AJARI(2024)의 설문 결과는 한국학 프로그램에서 교수 언어 및 교수법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강의식 수업과 참여형 수업의 조합, 그리고 과목 특성과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교수 언어의 선택은 학생들에 의해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언어 능력과 학문적 이해도를 동시에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질 높은 한국학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2.3.1.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전공 프로그램(한국어과/한국어학의 수

대다수의 응답자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전공 프로그램 및 관련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63명(90.8%)이 한국어 전공 프로그램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배경에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었다: 첫째,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서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283명, 78%), 둘째, 인도네시아 대학의 한국어 전공 프로그램 수가 타국에 비해 여전히 적다는 점(175명, 48.2%), 셋째,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153명, 42.1%)이다.

반면, 37명(9.3%)의 응답자는 한국어 전공 프로그램의 추가 개설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국 관련 기업에서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13명, 35.1%), 순수과학 또는 응용학문 분야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12명, 32.4%),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판단(4명, 10.8%) 등이다.

2.3.2. 한국어 학습의 시작 장소

대다수의 학생들(79.3%)은 처음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King Sejong Institute(세종학당)이나 Korean Cultural Center(한국문화원)과 같은 공식 기관을 통해 학습을 시작한 경우는 전체의 9%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학생들은 온라인 강좌, Kukche Language Institute와 같은 민간 어학원, 중등학교 교육, 그리고 YouTube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초기 한국어 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3. 한국어 학습의 난이도

한국어의 미시적 언어 요소에 있어, 학생들은 어휘 습득(48%), 문법 이해(45%), 발음(37%)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요소들의 난이도를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거시적 언어 능력 측면에서는, 읽기와 같은 수용적(receptive) 기술이 듣기보다 비교적 쉽게 여겨졌으며, 반면 말하기(65%)는 쓰기(37%)보다 더 어려운 생산적(productive) 기술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적 능력과 생산적 능력 간의 균형 있는 교수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2.3.4. 한국학 교과목의 개설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학의 핵심 교과목 중 상당수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철학’ 과목은 전체 응답자의 86%가 수강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정치’는 70.3%, ‘한국종교’는 5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과목 부재는 일부 대학의 커리큘럼이 여전히 언어 중심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학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3.5. 한국어 및 한국학 교재 사용 현황

대다수의 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에서 제작된 교재(57.3%)와 Korea Foundation에서 발간한 『Korean for Indonesians』 (54%)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5.8%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PDF, 복사본 등 무료로 접근 가능한 교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한국어 교육’이나 ‘번역’과 같은 과목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된 교재가 매우 부족하여, 많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교재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2.3.6. 한국어 학습 시간

응답자의 대부분(86.3%)은 강의 외에 한국학 학습에 주당 최대 5시간까지만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57.5%는 주당 1~5시간 동안 한국어 학습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학 전반에 비해 한국어에 더 많은 학습 시간이 할당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학 내에서 언어 영역과 비언어적 학문 영역 간에 학습 비중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2.3.7. 교수 방법

전체 응답자의 64.3%는 수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교수 언어가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혼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이중언어 접근이 일반적인 교육 방식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어만 사용하는 경우는 51%, 전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33.5%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언어적 접근 방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능력에 맞춘 조정의 결과로 해석된다. 학생들은 또한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과 학생 중심의 참여형 학습 방식-예를 들어

토론 및 발표-사이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학습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2.3.8.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의 시급성

한국학은 언어, 문화, 정치, 경제, 종교,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 학문 분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대학교(UI)와 가자마다대학교(UGM)는 경제 및 정치와 같은 분야 간 융합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는 인적 자원 역량 강화와 양국 간 문화적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UNAS)는 한국의 강점을 인도네시아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3.9. 한국학 자료의 접근 경로

학생들과 교수진은 Google Scholar, KCI, RISS, DBPIA, 그리고 한국에서 출판된 도서들을 통해 한국학 관련 문헌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로 된 참고문헌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며, 한국어로 작성된 문헌에 대한 접근성도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대학교(UNAS)는 디지털 자료 접근성에 있어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고하였으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어 기반의 교재와 참고 웹사이트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본 소절에서 제시된 구조와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교육과정, 교재, 인적 자원, 문헌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학 프로그램의 확대, 현지 맥락에 맞춘 교재 개발, 그리고 한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Koreanology)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된다.

2.4. 한국어, 한국학 교수 및 학습의 과제

2.4.1. 한국학 관련 과목 학습에서의 난이도 인식

대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면서 형성한 인식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한국학을 직접 수강한 이후의 인식 역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학생들은 한국 정치(83%), 한국 경제(79%), 한국 철학(79%), 한국 언어학(74%), 한국사(55%) 등 폭넓고 심층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한국학 하위 분야를 학습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한국 사회, 한국 종교, 한국 문학 등은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인식되고 있으며, 각각 28%, 47%, 51%의 응답자만이 해당 과목이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이 과목들의 난이도를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 44%, 한국 종교 33%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어 교육’과 ‘번역 및 통역’ 분야도 대체로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각각 33%와 42%만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롭게도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전공 학생들 중 일부는 한류나 한국 드라마와 같은 문화 관련 내용은 비교적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하였으며, 전체의 45%가 이에 동의하였다.

다음의 표는 한국학의 다양한 하위 분야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주요 어려움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하위 분야에서 학생들은 ‘강의 내용 자체’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한국 언어학 분야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9%). 반면 ‘강의 언어’(10%)나 ‘교재 언어’(16%)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한국학 수업에서 언어적 장벽보다는 학문적 내용의 복잡성이 더 큰 학습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교재 자체, 과제 및 연습 활동, 그리고 과목 수강 경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하위 분야별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와 ‘번역 및 통역’ 과목에서는 ‘과제 및 실습 활동’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각각 35%, 30%), 이는 언어 적용 능력과 번역 기술이 실질적인 노력을 요하는 학습 요소임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 철학’ 및 ‘한국 종교’ 과목에서는 ‘해당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해당 과목의 개설 자체가 부족하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관심이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은 또한 각 대학의 한국학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어려움은 교재가 인도네시아어로 제공되지 않아 자율 학습 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었다. 이 외에도 교재 구입처의 제한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책값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어로 된 한국학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400명의 응답자에게 1~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결과, 54.8%가 해당 교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2점을 준 응답자는 6명(1.5%), 1점을 준 응답자는 1명(0.3%)에 불과하였다. 중립적 태도 또는 “잘 모르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3점을 선택한 응답자는 49명(12.3%)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학을 학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도네시아어 기반의 학습 자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뚜렷하고 강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보다 포용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현지 맥락에 부합하는 학습 자료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2.4.2. 한국학 전공에서의 한국학 교육의 도전 과제

한국학 전공의 교수 현장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학생들이 비언어 교과목에 대한 흥미가 낮다는 점이며, 둘째는 교수 인력의 부족이다. 많은 학생들은 한국학 이론이나 한국어 교육과 같은 비언어 중심 과목보다는 실용적인 한국어 과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수의 학생들이 한류 등 대중문화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이론을 깊이 있게 탐구할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낮고, 한국어나 영어로 된 외국 문헌에 접근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번째로, 현지 교수진뿐만 아니라 한국인 원어민 교원 역시 부족하여, 교수자 1인당 수업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는 학습 과정의 최적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자마다대학교(UGM)는 한국인 원어민 교원이 단 1명에 불과하고, 국립대학교(UNAS)는 한국학 전공 배경을 가진 교수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기에 많은 학생 수가 더해져 교수자의 교육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교수자들과 설문 응답자들은 몇 가지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 학술지에 대한 접근성과 양질의 교육 자료 확보를 강화하고, 한국학 배경을 가진 교원을 확충하며, 기존 교수들의 학문적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과제, 사례 연구, 협동 학습과 같은 다양한 수업 모델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젊은 세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3.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 발전은 여전히 여러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장애 요인으로는 인적 자원의 부족, 교육과정 정책의 불균형,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한국학 분야의 전문 교수진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대학교(UI), 가자마다대학교(UGM),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 등 한국어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학교(UNAS)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적이다. 교수 수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강사가 한국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공 배경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 연계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UPI 역시 한국학 배경의 교수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교수진의 전공 배경 외에도, 교수 채용 시스템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UGM이나 UI와 같은 주요 대학에서는 박사학위(S3) 이상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어, 한국학 교수의 유연한 채용을 어렵게 만든다. 한편, 수업의 진정성과 문화적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원어민 교수의 수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에서는 한국학 전공 교원 채용 공고를 신설하거나, 한국학 관련 전공의 대학원 유학 장학금을 제공하며, 해당 분야의 학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교과목을 설계하는 등 전략적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존재한다. 언어 교육 중심의 커리큘럼 구성은 학제 간 융합적 사고와 탐구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한국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루는 교과목의 수는 여전히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한국학의 폭넓은 지식 영역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 전공 졸업생들이 한국 관련 기업이나 교육 기관 등에서 비교적 높은 취업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경로의 다양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특히 외교와 같은 전문 분야로 진출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학의 학문적 특성과 잠재력에 비해 실질적인 진로 개발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고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이 미약하다는 점도 중요한 제약 요소이다.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 또는 실무 중심 교육기관(폴리텍) 설립을 위한 행정 요건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으며, 대학 간 협력 체계도 전국적인 한국학 발전을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학 전공 졸업생들은 형식 교육 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이나 한국과 비즈니스 및 문화적 교류를 맺고 있는 다양한 기업체에서도 상당한 취업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학은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인적 자원의 강화,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2.5. 성장 가능성과 향후 비전

2.5.1. 한국학 전공 내 한국학 교과목 확대의 시급성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전공에서 제공되는 교과목 수의 제한성은 교수진에게 있어 중요한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 대학에서는 한국학의 학제 간(interdisciplinary)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자마다대학교(UGM)의 한국학 전공은 한국의 경제, 정치, 언어학, 문학 등을 포함하는 과목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는 한국의 경제 및 비즈니스 관련 교과목 개설, 한국어의 네 가지 기본 역량(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 강화, 한국어-인도네시아 양방향 통역 훈련, 한국어 정책 및 보존 이슈와 관련된 과목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립대학교(UNAS)는 한국 관광, 한국 사회 및 문화, 그리고 남북한 관계 및 한일 관계 등 국제관계와 관련된 교과목 개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과목의 확대는 한국학의 학문적 깊이를 제고하고, 교육과정의 시대적·사회적 관련성을 강화하며, 졸업생들이 한국 관련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2.5.2.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확장의 전략과 기대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 확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전략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대학교(UI), 가자마다대학교(UGM),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 국립대학교(UNAS) 등 주요 대학들은 새로운 한국학 전공 프로그램의 개설이 학문 공동체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한국학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자바섬 외 지역인 수마트라, 발리, 술라웨시, 칼리만탄 및 수라바야, 말랑과 같은 대도시들은 한국학 전공 확대의 전략적 잠재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자바섬 내에서의 학문 기반 강화가 선행 과제로 설정된 후 점진적인 지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한국학 전공의 지역적 균형 확대는 고등교육의 분포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학생들 간의 문화 교류 및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실행 과정에서 원어민 교수의 역할은 특히 언어 및 실용적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 발전은 궁극적으로 현지 교수진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관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어민 교원은 학습 경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완적 자원으로서 여전히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대학들은 인적 자원의 제약과 커리큘럼 다양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예컨대, UGM은 교수 역량을 기반으로 언어 교육과 디지털 기술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UPI는 언어 능력과 한국학에 대한 폭넓은 학문적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한 커리큘럼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진보적인 커리큘럼 설계와 교수 인력 개발 전략 간의 시너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의 확산은 정부, 고등교육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집단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한국학 전공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한국에 대한 학문적 시야가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진로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한국 간의 국제적 협력과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현재의 시대적 맥락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5.3. 한국학 강화를 위한 다자 협력 체계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 발전은 인도네시아 정부, 대한민국 정부, 양국 학계, 그리고 제3섹터 주체들 간의 시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부문 간 협력은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교육 및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작용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장학금 지원, 한국학 전공 개설을 위한 제도 개혁, 그리고 고등교육 기관 내 한국학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원어민 교수 파견, 교재 기증, 인도네시아 학생 대상 장학금 제공, 그리고 한국학 관련 학술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양국의 학자들과 교육 기관이 한국학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 커리큘럼 개발, 교재 집필 및 현지화, 워크숍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비정부기구(NGO)와 민간 부문과 같은 제3섹터 역시 한국학 대중 홍보, 프로그램의 발전 현황 모니터링, 졸업생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협력은 보다 포용적이고 경쟁력 있는 한국학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학문적 진보를 촉진함은 물론, 인도네시아-한국 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연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문화 간 대화와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5.4.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의 미래 계획과 기대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확대에 대한 계획과 기대는 기관 간 협력의 강화, 인적 자원(SDM) 역량 제고, 그리고 한국학의 학문적 범위 확장을 향한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대학교(UI)와 가자마다대학교(UGM)는 인적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학 전공이 인문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과학,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신설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한국학이 지식 생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 분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두 대학은 또한 교수진의 질적 향상, 한국 정부 및 학계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학 관련 연구 및 학술 출판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 개발, 커리큘럼 조정, 한국학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협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학 센터의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한편,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와 국립대학교(UNAS)는 한국학 프로그램의 품질 기준 제고, 정부 차원의 홍보 확대, 그리고 한국 관련 직업 기회의 다양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들은 또한 고등교육 정책이 보다 유연해져야 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비언어 분야-예: 비즈니스, 기술, 건축 등-를 강조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시된 기대에는 보다 폭넓은 연구 수행, 현지 맥락에 적합한 교재 개발,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 및 대학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한국학 센터 설립, 한국학 커리큘럼 발전, 그리고 초·중등학교 및 직업학교에서의 한국어 정규 과목화 등이 포함되며, 이는 한국 관련 학습을 국가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실질적인 시도로 간주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계획과 기대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 보다 긴밀한 국제 협력, 그리고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시급성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인도네시아 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3. 결론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의 발전은 점점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증가, 한국학 전공을 개설한 교육 기관의 확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교육 기관 간 협력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커리큘럼의 제약, 인적 자원의 부족, 적절한 교수 자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학이 단순히 대중문화 트렌드에 대한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내에서 공고한 학문적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의 수립을 요구한다.

정부, 교육 기관, 민간 부문,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한국학 발전은 보다 실질적인 장기적 목표를 지향할 수 있다. 이는 관련성 있는 교육과정 통합, 교수 역량 제고, 교육 인프라 제공, 졸업생을 위한 진로 기회 창출 등을 포함하며, 아울러 한국학이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제 간 접근 또한 지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학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외교 및 문화 교류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학의 잠재력 분석, 제도적 기반 강화, 그리고 부문 간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은 주요 학문 분야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지 학문적으로 유능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화 시대의 역동적 흐름 속에서 국가 간 협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AJARI, Park, K., Azizah, A., Meutia, F., Dessiars, A. R., Adnanya, P. P., Samsudin, D., Triarisanti, R., Widyana, A., Lubis, A. H., & Khaliya, M. (2024).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인식 및 실태조사 [Organizing the research on Korean Studies in Indonesia]*. Jakarta: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ors in

Indonesia (AJARI)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donesia.

Badan Pusat Statistik. (2022). *Statistik Indonesia 2022*. Jakarta: BPS–Statistics Indonesia. <https://www.bps.go.id>

Byon, A. S. (2012).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the United States: The Instructional Setting and Learners' Needs*.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17(1), 89–113.

Choi, J. (2015). The Impact of Hallyu on the Learning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Southeast Asia. *Asi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4(2), 45–58.

Indrawati, H. (2020). *Mengenal Karakteristik Generasi Muda Indonesia dalam Pembelajaran Abad 21*. *Jurnal Pendidikan dan Pembelajaran Abad 21*, 5(2), 87–95.

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Republik Indonesia. (2021). *Profil Pendidikan Nasional Tahun 2021*. Jakarta: Pusat Data dan Teknologi Informasi (Pusdatin), Kemendikbud.

Kim, Hyo-jeong (2021). “Indonesia–Korea Partnership: From 1973 to Strategic Partnership.” *The Korean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Korean Foundation. (2023). *2023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Overseas Statistics*. Seoul: Korea Foundation. [자료명: 2023 재외 한국어교육기관 현황].

Lee, H., & Kim, Y. (2021). *Globaliz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Challenges and Strategies*. Seoul: Hankuk University Press.

Nye, J.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World Bank. (2023). *Indonesia Overview*. The World Bank Group. Retrieved from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indonesia/overview>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한국언어문화전공